흡연 규제: 사회적 정의인가, 사생활의 침해인가?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

접수일 : 2011년 12월 20일
수정일 : 2011년 12월 23일
승인일 : 2011년 12월 28일

*교신저자 :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
Tel: 031-920-2003
Fax: 031-920-1511
E-mail: hongwan@ncc.re.kr

Smoking Regulation: Social Justice or Invasion of a Person's Privacy?

Hong Gwan Seo*

President of Korea Association on Smoking or Health,
Director of National Cancer Control Institute, National Cancer Center, Seoul, Korea

Copyright © 2012 b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Research on Nicotine and Tobacco.

19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흡연자들은 완전한 자유를 누렸다. 시내버스는 물론이고 기차나 비행기 안에서도 흡연이 자유로웠으며 심지어는 병원에서 의과대학 교수가 회진하다가 레지던트와 함께 담배 한 대를 피워 물었으니 더 말할 나위가 없었다. 아이들이 거주하는 방에서도 어른들은 흡연을 자유롭게 하였고, 교사나 교수들이 교실에서 흡연하는 것도 예사였다.

그런데 1988년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만들어지고 금연운동이 시작되었다. 세계금연의 날 행사가 치러지고 금연캠페인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금연운동에 자극받아 1992년 새마을 열차가 금연열차로 운행되었다. 뒤이어 아시아나 항공에서 자율적으로 비행기 안에서 금연을 실시하였다.

흡연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은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이 만들어지면서부터였다. 버스와 기차와 지하철 등의 모든 대중 교통수단에서의 흡연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었고, 기차역,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등의 공공장소와 학교, 병원, 관공서 등 공공시설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되었다.

이러한 흡연 규제는 처음에는 낯설어 했지만 곧이어 흡연 문화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했다. 마침 언론에서 담배의 해로움과 간접흡연에 대한 해로움을 자주 부각시키면서 담배의 해로움에 대한 국민적 자각이 높아졌다. 흡연자들은 실내에서 흡연할 때 자주 눈총을 받거나 항의를 받게 되었고 상당기간의 저항 끝에 실내에서의 흡연을 포기하게 되었다. 그러나 차츰 실외에서의 흡연까지도 주변의 눈치를 보게 되었다. 2000년경 금연클리닉에 찾아온 한 흡연자는 버스 정류장에서 흡연할 때도 풍향을 살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담배 연기가 가지 않도록 흡연해야 한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몇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금연구역이 확대되었지만 음식점과 술집을 비롯한 실내공간이 아직도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으로 나뉘어 있어 완전한 실내금연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런데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에 의해 금연구역을 선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법 개정이 이루어지자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쟁적으로 실외 금연구역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서울시는 이미 2011년 3월부터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선포한 이래 실외 금연구역을 확대하여 남산공원을 비롯한 시내 주요공원 20곳과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314곳을 금연구역으로 선포하고 운영 중이었는데 올해 ‘보도’와 ‘보행자 전용도로’까지 금연구역으로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다.

과거에 실내에서의 흡연에 대해서만 불쾌감을 표시하던 비흡연자들은 이제 버스정류장은 물론이고 길거리에서의 흡연에 대해서도 노골적인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다. 혼잡한 길거리 흡연이 불쾌한 이유가 또 하나 있다. 옆 사람이 담배를 피우면서 팔을 휘두르면 그 담뱃불에 자기 옷이나 살이 닿을까봐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담뱃불에 어린아이의 눈이 찔려 실명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으니 흡연자들이 길을 걸으면서 흡연하는 행위는 주변 사람에게는 커다란 위협이 된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비흡연자들은 길거리 흡연을 규제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잖아도 금연구역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서 담배 피울 곳이 없는데 길거리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니냐는 흡연자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일부 흡연자들과 일부 사회학자들은 개인의 사생활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제시한다.

개인생활에 대한 국가의 규제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은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선 음주운전은 운전자와 동승자의 목숨을 위협하고 때로는 교통사고를 통해 아무 죄 없는 제3자의 목숨까지도 위협하기 때문이다. 술을 마시는 것은 개인의 자율적 삶의 영역이지만 국가는 그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음주 운전을 단속하는 것이다. 국가가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어느 선까지 개입하는 것을 ‘온정적 간섭주의(가부장적 정책, Paternalism)’라고 말한다. 어떤 사람이 자살을 목적으로 빌딩에서 뛰어내리려고 할 때 경찰관이 자살을 못하게 방해하는 것도 온정적 간섭주의의 한 예다.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것과 같이 흡연자의 건강을 위해서 흡연을 규제하는 행위는 온정적 간섭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흡연규제는 온정적 간섭주의라기보다 헌법에 보장된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에 대한 침해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국제암연구소는 세계보건기구의 산하단체로 발암

물질을 분류해서 발표하는 권위있는 기구이다. 이 기구는 간접흡연도 인간에서 발암이 확정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비흡연 여성이 흡연 남성과 결혼했을 때 비흡연 남성과 결혼했을 때에 비교해서 폐암이 약 두 배 생긴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또한 간접흡연으로 천식 발작이 더 많이 생길 뿐 아니라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에서는 짧은 시간의 간접흡연 노출로도 심근경색의 위험이 있음이 입증되었다.

그런데 실외에서의 간접흡연을 규제하기 위해서 어떤 근거가 있을까? 아직 실외에서의 간접흡연이 어떤 질병을 일으킨다는 근거는 뚜렷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행복 추구권이 보장되어 있는데 자신이 맡고 싶지 않은 담배 연기에 노출되어 눈과 코가 따갑고 숨쉬기가 불편한 간접흡연은 분명 개인의 행복을 침해하는 사유가 분명하다. 만약 여러 사람이 사는 공동주택에서 누가 크게 노래를 하거나 피아노를 친다고 가정해보자. 그 노래소리 때문에 소음성 난청이 생기지 않는다해도 다른 사람의 행복을 침해하기 때문에 그 소음은 규제하는 게 마땅하다. 일조권도 자신이 햇볕을 쬐고 싶은 권리인데 이것 또한 행복추구권과 일맥 상통한다.

흡연자들은 개인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흡연이 지나치게 간섭당한다고 느낄 것이 분명하다. 예전에 마음껏 흡연하던 시절과 비교해서 지금은 그야말로 어디가든 눈치 보면서 담배를 꺼내야 하고, 옆 사람들을 흘끔거리면서 담뱃불을 붙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흡연자들은 자신이 흡연할 권리는 다른 비흡연자의 건강과 행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으로서 안타까운 점은 아직도 실내 금연도 아직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은 음식점과 술집을 포함한 모든 직장과 작업장을 금연으로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도 다중이 이용하는 모든 실내를 금연으로 선포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공원이라든지 산책로와 같은 시민들의 휴게 공간이나, 혼잡한 길거리에서는 금연을 선포해야 한다. 혼잡한 길거리에 대한 정의가 애매하겠지만, 일단 팔을 벌려 옆사람이 닿을 정도가 되는 구역과 버스 정류장이나 전철역 주변처럼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구역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금연으로 선포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대략 5천만명인데 흡연자는 1천2백만명 정도이다. 성인만 계산하더라도 흡연자는 30%에 불과하니 금연정책을 펴면 지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들은 흡연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모든 실내에서의 완전금연과 혼잡한 길거리를 비롯한 실외에서의 금연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시대의 흐름이다.

참 고 문 헌

1. Seo HG. Smoking regulation, irresistable trend. Hankyoreh. 2011 Dec 24. Korean.
2. Koh ET. Left smoking in the area of private life. Hankyoreh. 2011 Dec 24. Korean.